

# “동의 없이 전주대대 이전 안해”

### 정현을 시장 국방부 항의 방문서 긍정적 검토 답변 받아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2일 전주대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국방부 항의 방문에서 국방부로부터 시민 동의 없이 이전 불가라는 입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전주대대 위치 이전 재검토는 어렵지만 노력하겠다”며 “주민 동의 없이 국방부 토지 양여를 전주시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전주항공대대 비행노선(운항장주)을 변경해달라는 익산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대해 “항공대대측과 적극 협의하여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전주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 철회 요구와 항공대대 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강력 항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항공대대 헬기(군용기)가 익산 춘포 지역과 김제시 백구지역 상공으로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국방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주시의 일방적인 전주대대 익산?김제 점령지역(도도동) 이전은 익산시민과 김제시민의 일방적인 회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2일 전주대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국방부 항의 방문했다.

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거나 화전동 등 익산?김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가 익산?김제시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익산?김제 점령지역(도도동)으로 이전 결정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며 전주대대 이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익산과 김제 주민들은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서명 운동 전개와 함께 100일 넘게 전주시

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주시와 국방부를 연이어 항의 방문하며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겠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임신·출산·육아 한 눈에!

### 2021년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군산시가 2021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1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 인구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을 떠나는 인구보다

접입 오는 인구가 많아 감소세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의 심화로 인해 인구감소세는 아직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발간되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과 달리 주요 정책 미리보기란을 신설해 가독성을 높이고, 부모 소리를 만들어 가이드북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후기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 “건강한 한끼 밥상 드시고 가세요”

### 군산시 옥서면, ‘오늘은 외식하는 날’ 사업 실시

옥서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고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늘은 외식하는 날’ 사업을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옥서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신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오늘은 외식하는 날’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전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50명에게 외식쿠폰(1인 4매)을 지원해 따뜻한 한끼 식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오늘은 외식하는 날’은 오는 7월까지 옥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 기탁금 84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50명



예제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생활관리사, 사랑재가센터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외식쿠폰 대신 반찬을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음식점 인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1개월 70명씩 나눠 5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초대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장’ 임명

익산시가 도내 최초 합계 행정기관 감사위원회를 이끌 초대 감사위원장에 함경수(60)위원장을 임명했다.



함경수 신임 감사위원장은 현 행정안전부 소속 감사와 계약, 회계 분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꼽힌다. 1988년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재정정책과, 회계계약제도과 등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등 여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해 왔다.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후보자 모집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익산시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시 소속 부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청렴도 향상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 비응항 합동 청결활동 실시

군산시가 봄을 맞아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동 청결활동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수협 및 비응도어촌계, 비응항 상인연합회 등 비응항 관계기관과 이용단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응항 일원 도로변 적치물 제거, 방치된 불법 쓰레기 수거 등 대대적인 합동 청결활동을 펼쳤다.

이번 청결활동은 방역수칙을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 약 2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청결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쓰레기 불법배출이 민연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청결활동보다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 개선이 먼저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군산=함경봉 기자

# 익산시 ‘아이스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 5개 권역 행정복지센터·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수거함 비치

익산시가 시민단체와 손잡고 환경오염원인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다.

시는 지난 5일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과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아이스팩 수거-운반-세척-수요처 배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우선 함열읍, 동산동, 모현동,

영등1동, 삼성동 등 5개 권역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비치했으며 이날부터 수거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가정에 보관하던 젤 유형의 아이스팩을 거주지와 가까운 권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배출하면 된다.

아이스팩 수거 활성화를 위해 크기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형태의 젤 유형 아이스팩 5개를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가져가면 20리터 종량제 봉투 1매(1인 월 3매까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2곳에도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부직포, 파손, 오염된 아이스팩은 기존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시민단체와 협업해 세척과 소독을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점통시장과 마트 수산물 코너 등 수요처를 발굴해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8월까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등이 입증될 경우 20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손진영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이 잘 정착돼 친환경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시책인 만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